

통화 중 메모? NO!... “녹음된 음성, 문자로 자동 전환”

# SKT, T전화에 ‘AI 통화녹음’ 도입

STT·대화분석 등 AI 기술 더해  
통화 내용도 손쉽게 찾을 수 있어  
텍스트 데이터 전환으로 활용성 ↑

“SKT ‘AI(인공지능) 통화녹음 서비스’가 당신의 일하는 능력을 업그레이드해 드립니다.”

SK텔레콤은 통합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T전화에 음성 통화 녹음을 문자로 변경해 제공하는 ‘AI통화녹음’ 서비스를 추가, 23일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SKT의 ‘AI통화녹음’은 통화 시 녹음된 음성 파일을 문자로 전환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존 T전화의 통화녹음 기능에 STT(음성을 문자로 변환하는 기술)·대화 분석 등 AI 기술을 더해 제작됐다.

SKT는 ‘AI통화녹음’의 화면을 대화창 형태로 구성, 이용자가 자신과 통



SK텔레콤은 T전화에 기존 통화 녹음을 문자로 변경해 제공하는 ‘AI통화녹음’ 기능을 추가, 23일부터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SKT

화 상대방의 대화를 한 눈에 구분하고 전체 통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했으며, 검색 기능을 통해 원하는 통화를 손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SKT는 통화 중 말한 전화번호나 일정, 계좌번호 등을 쉽게 복사할 수 있는 ▲자동 키워드 추출 기능과 통화 내용에 AI가 추천한 키워드를 설정해

통화 목록을 좀 더 쉽게 관리할 수 있는 ▲통화 대표 키워드 기능도 ‘AI통화녹음’에 탑재해 이용자 편의성을 높였다.

‘AI 통화녹음’의 다양한 기능들은 휘발되던 음성통화를 텍스트 데이터로 자동 전환시킴으로써 활용성을 높였는데 의미가 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 삼성SDS, 혁신기술 공유의 장 열려

개발자 콘퍼런스 ‘테크토닉’ 진행  
클라우드·AI 등 연구 성과 발표

삼성SDS가 ‘최적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위한 혁신기술’을 주제로 최신 IT기술을 공유하는 장을 연다.

삼성SDS는 개발자 생태계 확장을 위해 최신 기술과 개발 노하우, 인사이트를 공유하는 ‘테크토닉 2021’ 행사를 23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4회째인 테크토닉 2021은 ▲클라우드 ▲보안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CX 등 총 21개 세션에서 삼성SDS의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8000여 명이 사전 신청을 하는 등 국내 IT개발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기조연설 발표자로 나선 소프트웨어 보안 분야 글로벌 석학인 코넬테크대 그렉 모리셋(Greg Morrisett) 부총장은 ‘보안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삼성SDS 전문가들이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최고 권위의 신경정보처리시스템학회 ‘NeurIPS 2021’에 채택된 AI기반 조합최적화 기술 ▲코딩을 거의 하지 않고도 개발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Low Code Development Platform ▲SDS Cloud 환경에서 쉽게 구현하는 머신러닝 기반 서비스 운영 효율화(ML Ops) 등 다양한 주제를 소개했다.

24일에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최적의 자원 분배를 위한 GPU 스케줄링 방법 ▲텍스트 분석 기술을 이용한 고객의 VoC 처리 지능화 적용사례 등의 세션이 공유된다.

이와 함께 파트너사인 엔비디아(NVIDIA) 정소영 상무가 ‘초거대 AI 연구를 위한 기반 기술’을, 삼성SDS와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이상근 교수가 ‘GNN(기계 학습의 그래프 구조에서 사용하는 인공지능망)을 이용한 악성코드 탐지’ 연구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강준혁 기자 junhyuk@

## LGU+, 독거 노인에 ‘사랑의 꾸러미’ 나눔

연말 맞아 협력사와 나눔활동  
870가구에 식료품 등 전달

LG유플러스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협력사 협의체인 U+동반성장보드와 함께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사랑의 꾸러미 나눔 시즌8’ 행사를 펼쳤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LG유플러스와 복지센터, U+동반성장보드 회원사인 협력사 소속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이 참가해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쌀을 비롯한 식료품을 담은 ‘사랑의 꾸러미’를 제작했다. 사랑의 꾸러미는 보건복지부 위탁법인 독거노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홀로 사는 어르신 870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행사는 코로나19를 고려해 50명 이내로 제한해 진행했다. U+동반성장보드 협력사의 공동 기부로 기금이 증가함에 따라 후원 대상 어르신은 지난해 대비 270여 가구 늘었다.

U+동반성장보드는 LG유플러스의



LG유플러스 임직원 및 협력사 자원봉사자들이 사랑의 꾸러미를 제작하는 모습. /LG유플러스

29개 협력회사로 구성된 동반성장 협의체로, 동반성장 관련 제도 및 시행 내역을 공유하며 LG유플러스와 협력사 및 협력사들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동반성장보드 의장사인 유비쿼스 이정길 부사장은 “LG 유플러스와 매년 함께 하는 ‘사랑의 꾸러미 나눔 시즌8’ 봉사활동을 통해 사랑과 따스함을 느끼는 매우 소중한 시간이었다” 며

“특히 올해는 많은 보드사들이 동참해 더욱 많은 이웃들에게 정성을 전달하는 만큼, 따뜻한 겨울을 나는 데 힘이 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LG유플러스 김종섭 동반성장/구매 담당은 “동반성장보드의 설립 취지인 상호 배려 및 상생 확대를 실천하기 위해 매년 ‘사랑의 꾸러미’ 제작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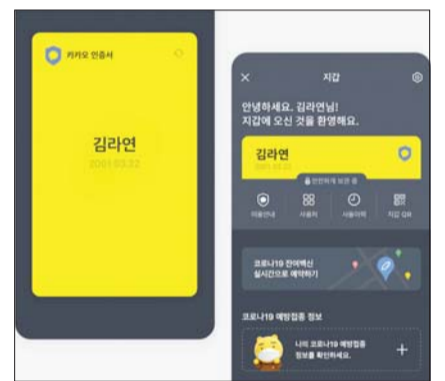
## 카카오,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인정 받아

인증서 활용범위 확장 계획

카카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 최종 인정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서명인증 평가·인정제도는 작년 12월 공인전자서명인증제도 폐지 이후 전자서명인증 수단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입됐다. 카카오는 전자서명인증서비스 가입자·이용자 보호를 위해 사업자가 지켜야 할 물리적·관리적·기술적·개인정보보호 등 70개 심사 항목을 통과했다.

카카오는 이번 전자서명인증사업자 인정을 계기로 금융 분야 마에이데이터 통합 인증 사업 등 이용자 2800만명을 보유한 카카오 인증서(사진)의 활용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 인증서로 국제청 홈택스·위택스와 행정안전부 정부24,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번호 조회, 보건복지부 복지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 잔여 백신 당일 예약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에도 활용되고 있다. /강준혁 기자

## KT 의료 AI 기술력, 세계에서 우수성 인정

국제 의료 AI 경진대회서 1위 수상

KT의 의료 인공지능(AI) 기술이 국제대회 1위를 차지하며,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KT가 국제의료영상처리학회(MICCAI)에서 개최한 의료 AI 경진대회인 ‘SARAS-MESAD’에서 1위를 기록했다고 23일 밝혔다.

국제의료영상처리학회는 의료 AI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단체이다. 올해 대회는 5월부터 약 3개월간 열렸으며, 인공지능을

통해 전립선 수술의 각 단계를 얼마나 정확하게 파악하는지를 놓고 런던대, 베이징대, 홍콩과기대 등 세계 각국의 연구팀들이 참가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KT는 대회에서 제공된 실제 수술 화면 이미지와 외과 의사 훈련용 인공해부학 시술 이미지 모두에서 우수한 성적을 기록하며 최종 결과 1위를 기록했다.

MICCAI가 개최하는 의료 AI 경진 대회는 국내 유명 의료 AI 스타트업의 기술력을 입증하는 ‘등용문’ 역할을 했다. 올 상반기 상장한 의료 AI 솔루션

개발 기업 ‘뷰노’와 상장을 준비 중인 ‘루닛’도 각각 2018년과 2020년, 2016년에 본 대회에서 1위를 차지해 시장에 우수한 기술력을 알렸다. 이번 MICCAI 대회는 KT의 AI 기술이 의료영역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고, 1위 수상 결과로 KT가 충분히 의료 AI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 수 있음을 증명했다.

KT는 기존에 보유한 ‘비전(Vision) AI’ 기술과 의료영역을 접목해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진입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디지털&바이오헬스사업단내 의료인공지능 전담 부서를 신설, 의료 AI 분야를 집중 육성해 왔다.

/채윤정 기자

## 사이월드-한컴, 메타버스 플랫폼 만든다

합작법인 ‘사이월드 한컴타운’ 설립

사이월드제트가 한글과컴퓨터와 손을 잡고 메타버스 플랫폼 ‘사이월드 한컴타운’을 만든다.

사이월드제트는 한글과컴퓨터와 사이월드 메타버스 플랫폼 운영을 위한 합작법인 사이월드 한컴타운 설립을 위한 합작투자계약을 완료하고 법인 설립에 들어갔다고 23일 밝혔다.

사이월드 한컴타운은 12월17일 사이월드와 동시 오픈할 사이월드 메타버스 플랫폼 사이월드 한컴타운을 운영하게 된다.

메타버스 플랫폼 ‘사이월드 한컴타

운’ 합작법인의 지분율은 한글과컴퓨터 51%, 사이월드제트 49%다.

사이월드 한컴타운은 사이월드제트와 한글과컴퓨터의 임원 동수로 6인의 이사회가 구성되며, 각자 대표로 사이월드제트에서는 김태훈 사이월드제트 COO(최고운영책임자)를 선임한다.

사이월드 개발사인 에프엑스기어의 이창환 경영고문이 사이월드 한컴타운의 공동 CTO(최고기술책임자)를 맡기로 하고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려, SNS 사이월드와 메타버스 플랫폼 사이월드 한컴타운간의 완벽한 연동을 만들어 갈 전망이다.

/강준혁 기자